

홀몸 어르신 돌보는 고양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노인은 곧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노쇠하고, 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고양시는 홀몸 어르신, 고령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글. 사진. 한순주(고양시 노인복지과 주무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지원

첨단기술과 결합한 '스마트돌봄' 확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현장에서는 생활지원사가 주 3회 전화와 방문으로 어르신들의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노인 가정 내 활동 감지, 화재·가스 감지 등이 가능한 ICT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119로 자동 연계되는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께는 시돌봄로봇을 활용해 약 복용이나 식사시간을 알려주는 등 건강관리를 돕고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노인돌봄프로그램으로 생활에 활력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목적은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악화를 막고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여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잔존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돌봄현장에서는 실버체조, 치매예방활동, 영양교육 등 신체 건강프로그램과 정서 지원을 위한 반려식물 키우기, 힐링텃밭, 미술 활동,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돕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 ICT응급안전장비 설치
(아래) 신체건강을 위한 실버체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는 가사지원과 외출동행까지

건강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는 생활지원사가 주 2회 방문해 가사지원과 외출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병원 진료나 장보기, 산책 등 어르신이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자가 동행해 주니 외출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현재 고양시는 스마트돌봄과 결합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로 촘촘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고양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신청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